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삼위일체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요즘의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흐려진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흔들거림 속에서도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이 사회를 붙잡고 여겨주십시오. 갈등과 분열, 비방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이 사회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십시오. 불의와 분쟁의 물결 잠잠케 하시고 평화와 화해의 물결 넘실거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2:4 인도자

♠ 교 독 문 9. 시편15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안 훈 선생 II. 김재홍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50(통135). 갈보리산 위에 다함께

성경봉독 I. 렘1:11-15 전수정 학생

II. 사10:20-23 김윤정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무엇을 보고 있느냐 김재홍 목사

II. 그루터기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양 582(통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 날은 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내 뜻과 반대로 흘러가는 역사를 보며 가슴만 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희망을 품어 봅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자신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이 옆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설교 : 손성현 전도사	6월 기도의 밤
기도 : 정현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이승철 학생	최명하 학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송동준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훈동 조관행 유경순 홍선희 이현숙
	헌금위원	한상익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바나나를 숨기는 침팬지

동물들도 과연 생각할 줄 아는가? 개나 고양이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만이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을 자기 개나 고양이가 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 아이는 모두 천재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처럼 자랑스레 떠들어댄다. 물론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다.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산책을 가자고 해보라. 꼬리를 흔들며 매일 가는 산책길을 저만큼 먼저 달려갔다가 돌아왔다 또 달려가곤 하며 좋아한다. 늘 걷는 길을 기억하고 있음은 물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벌어질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며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다. 때론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지름길로 먼저 달려가 기다리기도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닌 것이다.

행동생물학자들이 동물들에게도 과연 사고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실험으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말을 하는 행위다. 평생을 침팬지와 함께 한 제인 구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침팬지 한 마리를 따로 불러 한 번에 다 먹어치울 수 없을 양의 바나나를 안겨주었다. 그러자 그 침팬지는 바나나를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놓고 조금씩 꺼내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친구들이 나타나 바나나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우성을 치자 그는 손가락으로 정반대쪽을 가리켰다. 그리곤 그들이 모두 그쪽으로 사라지자 재빨리 숨겨놓은 바나나를 또 꺼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네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지나치게 거짓말을 잘 한다고 찾아온 어머니에게 아이가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증거이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아동심리학자들이 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상황 판단을 끝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에게는 해도 괜찮은 거짓말과 절대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남과 나누지 않으려고, 더 가지려고 거짓말을 하는 추한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또한 가르쳐야 한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생물학이란 학문은 워낙 방대해져 한 학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한 해에 가르치기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그래서 교과서의 한 두 장은 스스로 공부한 후 리포트를 작성해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학기에도 진도를 다 못 나갈 것 같아 비교적 덜 중요하거나 혹은 혼자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 리포트를 내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밤늦게 책상머리에 기대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들춰보기 시작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에 거슬리는 실수 하나가 여러 리포트에서 반복되는 걸 발견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질의 실수가 아니었기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첫 리포트부터 다시 검토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리포트를 제출한 것이다. 글씨체나 장정만 바꿔 제출한 ‘지능적인’ 리포트들이었다. 때론 컴퓨터가 우리를 참으로 비겁하게 만든다.

나는 그 문제의 리포트들을 들고 한참 동안 고민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들이 무슨 교훈을 얻을까 생각해보았다. 지독한 교수에게 걸려 재수 없이 당했다고 투덜대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실에 들어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의 이름을 칠판 구석에 적고 한 사람씩 날 찾아오라고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따로 만났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거창한 훈계를 했다. 교수라 해도 학생들을 나무라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웬지 꼭 해야 할 것 같았다.

“자네는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생이네. 물론 자네의 노력으로 들어온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네의 복일세. … 그런 자네가 거짓말도 불사하며 나만의 이득을 위해 산다면 자네보다 훨씬 덜 가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네만큼 잘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살라는 말인가. 능력 있고 복 받은 자들이 더 가지려고 움켜쥐면 이 세상은 날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가진 자의 거짓말은 그 죄과가 그만큼 더 무거운 수밖에. 나와 한 가지만 약속을 하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네.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오로지 정도(正道)만 걸겠다고 나와 약속하게. 그래도 자넨 절대 굽어죽지 않을 걸세.”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도 내게 가끔 편지를 보낸다. 나 역시 그 학년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

고요함에 대하여

야마오 산세이
(일본의 시인이며 생명운동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고요함이다
산에 둘러싸인 작은 밭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플 때까지 팽이질하며
가끔 그 허리를 / 녹음이 짙은 산을 향해 쪽 편다

산 위에는
작고 흰 구름이 세 조각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고요함이다

산은 고요하다 / 밭은 고요하다
그래서 나는 고향인 도쿄를 버리고 농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의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고요함이다

산은 고요하다 / 흙은 고요하다
별이가 안 되는 것은 괴롭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고요함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김용진 박효선 박규석 박경선 오자영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조관행 홍선희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김민화 장원호 박성희 이성운 무명2

월정헌금:

김순자 김윤정 박준희 이기분 윤주원 최윤선 이유선 방극숙 이재구
 황선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의일 이현숙 구명자 임 영 정경례
 이봉옥 서지은 백성례 이경남 문홍일 이미혜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철수 유명남 전 용 윤석철 장혜숙 백혜숙 하재두
 백묘현 전성오 김종철 고영애 구성실 무명5

녹색꿈헌금:

손민호 손민아 문금석 곽상준 최경미 김준우 무명

생일헌금:

김희은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김 정 섭	박 성 실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최 경 미	이 은 옥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문 영 혜	신 영 신
갈 린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신 동 례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문 복 순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정 숙	김 정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이 봉 옥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황 선 희	이 형 숙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박 찬 정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수 진	김 수 진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방 극 숙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임 창 선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삼위일체주일** : 오늘은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 **기도의 밤** : 이번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기증 받습니다** : 6월 둘째 주,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초록가게에서 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의류, 완구류 등을 기증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수양회 설문조사** : 2010년 여름 전교인 수양회(주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를 위한 간단한 설문지(프로그램 제안)를 다음 주일(6월 6일) 예배 직후에 작성합니다.
5. **신앙실천** : 6월 2일(수) 지방선거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이국노 김민화 이준하 (다음 주 : 정희은 박시내 곽상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